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현황 비교 및 분석

이소영 · 최경희 · 최석진^{*}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A Study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among Korea, Japan and China

So-Young Lee · Kyung-Hee Choi · Suk-Jin Choi^{*}
(Ewha Womans University ·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Abstract

As exchanges and cooperations among Korea, Japan and China about environmental issues become active, exchange programs about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ncreas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s in Korea, Japan and China is analyzed and compare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ing. First,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is mainly executed by NGOs about environment, religion and gender. In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n Korea, education for sensibility in which all the people can participate such as field investigation, camping and travel holds the majority. However, the education about social-political knowledge which deals with environmental policy and economy is not sufficient. Second, in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n Japan, the education of environmental education methods and knowledge about environmental issues, in which citizens participate such as workshop and forum holds the majority. Third,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n China is mainly executed by CEEC under SEPA. Education toward teenagers for fostering environment-friendly attitude is mostly active, and lectures are in general. However, education for the specific knowledge of environmental issues is not enough.

*2002. 12. 접수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s very significant as lifelong education for environment friendly welfare society since civil decision-making leads directly the social behavior. Therefore, efforts must be made to develop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of each countries by means of active exchange and energetic support of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and autonomous exchange of NGOs for the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Key word : TEMM, TEEN, Japan, China,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I. 서론

환경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름길로써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국제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환경교육에서 이웃 지역이나 분야에서 획득한 지식과 경험에 대한 공유는 일반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사회환경교육에서 관련 분야 및 이웃간의 연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삼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밀접하면서 환경문제까지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삼국간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환경교육은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같은 환경권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원진레이온 등 공해산업이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이전되어 온 역사에서 보여지듯이 환경오염의 역사에 있어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므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는 삼국의 사회환경교육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삼국의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는 각국의 한 사회환경교육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에서 구축한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국의 사회환경교육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일본, 중국에 있는 많은 사회환경교육 조직 중 한국 36개, 일본 31개, 중국 21개의 조직을 선정,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환경교육

실태와 다를 수 있다. 둘째, 삼국에서 사회환경 교육 조직을 선별함에 있어, 각 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 기준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만으로 삼국의 사회환경교육을 획일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II. 한국, 일본, 중국의 교류

한국, 일본, 중국은 각 나라의 환경교육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과 활동들에 있어서 그룹들간, 또는 국제적인 연구소들 간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다.

1999년 삼국의 환경 장관들은 한국, 일본, 중국 삼국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TEMM)를 개최하여 환경에 관한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로 하고, 제2차 한국, 일본, 중국 삼국 환경장관회의(2nd TEMM 2002. 2. 북경)에서 삼국간 환경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국 환경장관회의 실무회의(2000. 6. 제주시)에서 삼국의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및 NGO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하고

〈표 1〉 한국, 일본, 중국 삼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Focal Point

국가	Focal Point
한국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학회(KOSEE)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SEPA) 산하의 환경교육 & 정보센터(CEEC)
일본	사단법인 일본환경교육포럼(JEEF)

민간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한국, 일본, 중국 삼국 환경교육 네트워크'(The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TEEN)가 합의되었다.

2000년 11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1차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삼국이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확대·강화해 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 단계로서 삼국의 '환경교육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Database Creation Project on Environmental Education)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공동제작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10~15개 단체씩 조사하여 삼국 사회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제 2차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및 심포지엄은 2001년 10월 29일 ~ 11월 1일에 걸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고, 제 3차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 및 심포지엄은 2002년 9월 25일 ~ 27일에는 한국에서 개최되어 삼국의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환경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삼국에서 각각 2001년과 2002년에 조사된 '환경교육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환경교육 데이터 베이스'는 2000년 11월에 열린 제 1차 한국, 일본, 중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워크숍의 합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2001년 1월 각국의 focal point가 동경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2001년과 2002년 각 국 환경교육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 등록 예정 단체를 설문지 발송 또는 방문함으로써 작성되었다. 현재 일본 31개 단체, 중국 21개 단체, 한국 36개(환경부 자료 포함)의 단체의 자료가 모아졌다. 조사 단체들의 경우, 한국과 일본은 민간단체가 중심이지만 중

국은 대부분의 사회환경교육이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자체적인 민간단체가 적은 상황에 따라 정부 산하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중심적이다.

〈표 2〉 한국, 일본, 중국 설문 조사단체

분류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사회 단체	36	31	9	
정부기관	0	0	12	
합계	36	31	21	

삼국 공동설문지의 설문항목은 1 단체의 목적 및 설립경위, 2 연락처, 3 조직(창립시기, 조직구성원, 회원수, 지부) 4 재원, 5 환경교육프로그램(제목, 대상, 장소, 운영기간, 내용, 정기성 여부 등) 6 출판물, 7 협력단체 및 기관, 8 차후 5년 간의 계획, 9 자체평가, 10 TEEN에 대한 요망사항 등이었다. 그러나 분석항목은 삼국 공동설문지의 설문항목을 기본으로 하되 응답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였고 협력단체 및 기관, 차후 5년 간의 계획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항목에서 사회환경교육조직의 성격, 재원 출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 및 대상에 대한 범주는 국내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이전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응답내용에 따라 첨삭하였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분석은 NAAEE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분석틀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중국의 경우 녹색학교에서 실시된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그 외 녹색학교 관련 프로그램은 녹색학교라는 항목으로 따로 분리하였다. 분석결과는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삼국의 사회환경교육 설문 결과

가. 삼국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성격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성격으로 한국의 경우 환경운동이 30.6%, 자연보존이 22.2%로 환경운

〈표 3〉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조직의 성격

성격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자연보존	8	22.2 %	5	16.1 %
사회정의	0	0 %	2	6.4 %
연구 및 정보제공	3	8.3 %	6	19.4 %
환경교육	6	16.7 %	6	19.4 %
기금지원	1	2.8 %	7	22.6 %
환경운동	11	30.6 %	3	9.7 %
종교	5	13.8 %	0	0 %
여성	2	5.6 %	0	0 %
교육	0	0 %	2	6.4 %
정부행정	0	0 %	0	0 %
합계	36	100 %	31	100
				9
				42.9 %

동과 자연보존활동을 하는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은 기금지원이 22.6%를 차지해 한국과 일본에 비해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중국은 정부행정이 57.1%로 가장 많아 정부행정기관에서 환경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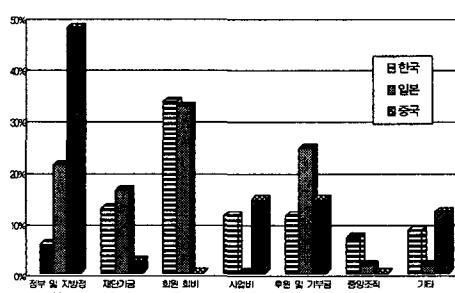
나. 삼국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재원 출처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재원출처는 단체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2개씩 복수 선택하였다. 조사결과, 한국은 회원회비가 33.3%, 재단기금 지원이 12.6%를 차지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은 5.6%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회원회비가 32.3%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외

후원 및 기부금 24.2%,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21.0%로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있고 정부지원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47.6%로 사회환경교육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삼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는 한 조직이 최근 2년간 실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이번 설문조사 작업에 참여한 한국 36개, 일본 31개, 중국 21개 단체에서 최근 2년간 실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는 각각 197개, 134개, 104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2년간 실시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한국 54.3%, 일본 66.4%, 중국 70.2%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나타나 삼국 모두 전체 환경교육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을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기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비정기적 프로그램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삼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한 조직 당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는 한국이 5.5개, 일본이 4.3개, 중국이 4.9개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림 1〉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재원 출처

라. 삼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

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종류에 따라 13가

〈표 4〉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수

국가	한 국			일 본			중 국		
	정기적	비정기적	계	정기적	비정기적	계	정기적	비정기적	계
전체(개)	107	90	197	89	45	134	73	31	104
비율(%)	54.3 %	45.7 %	100	66.4 %	33.6 %	100	70.2 %	29.8 %	100
평균(개)	3.0	2.5	5.5	2.9	1.4	4.3	3.4	1.5	4.9

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야외답사는 당일코스로 자연탐사 또는 시설답사를 하는 것이고, 캠프 및 기행은 하루 이상 숙박을 포함하여 진행되는 교육 형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의 녹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형태는 주로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따로 분리하였다.

한국, 일본, 중국 삼국이 환경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약간의 다른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에서 자연체험과 환경오염 현장, 그리고 공해정화 시설 등을 견학하는 야외답사와 캠프 및 기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로 절

반이상이나, 일본은 워크숍 및 토론회가 26.2%로 가장 활발하고 다음으로 야외답사가 11.9%로 두 번째로 많아 워크숍 및 토론회 형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한국과 중국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환경교육은 강의 형태가 22.1%를 차지해 정부 주도의 사회환경교육이 주로 강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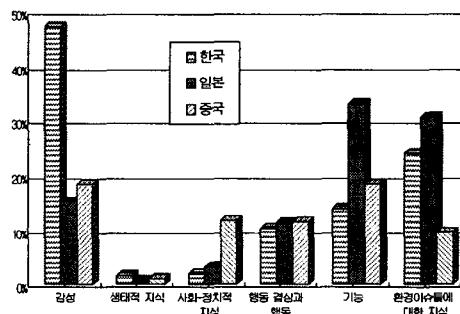
마. 삼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에서 한국은 감성에 대한 교육이 전체의 47.2%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환경이슈들에 대한 지식 또한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지식에 대한

〈표 5〉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

구분	국가	한 국		일 본		중 국	
		워크숍 및 토론회	8.1 %	35	26.2 %	9	8.7 %
강의		23	11.7 %	11	8.2 %	23	22.1 %
야외답사		76	38.6 %	16	11.9 %	4	3.8 %
캠프 및 기행		33	16.8 %	9	6.7 %	5	4.8 %
캠페인		14	7.1 %	10	7.5 %	9	8.7 %
Club구성 및 운영		8	4.1 %	8	6.0 %	4	3.8 %
연구조사 및 출판		11	5.5 %	11	8.2 %	14	13.5 %
문화행사		8	4.1 %	3	2.2 %	9	8.7 %
재정지원		1	0.5 %	6	4.5 %	3	2.9 %
시청각교육		2	1.0 %	0	0 %	2	1.9 %
통신강좌		1	0.5 %	1	0.7 %	0	0 %
놀이 및 게임		2	1.0 %	2	1.5 %	0	0 %
경연대회		1	0.5 %	2	1.5 %	5	4.8 %
녹색학교		-	-	-	-	8	7.7 %
기타		1	0.5 %	9	6.7 %	5	4.8 %
무용답		0	0 %	11	8.2 %	4	3.8 %
합계		197	100 %	123	91.8 %	100	96.2 %

내용은 거의 없어 환경정책 및 환경경제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기능 교육 및 환경이슈들에 대한 지식교육이 매우 활발하였으나, 역시 사회-정치적 지식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어 환경정책 및 환경경제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은 녹색학교를 제외하고 기능 교육이 18.3%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감성과 사회-정치적 지식이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사회-정치적 지식은 모두 환경규제법과 환경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나타나 환경규제법을 알리는 교육이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일본, 중국 모두 생태적 지식에 대한 교육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해 생태적 개념, 에너지 흐름, 자연 시스템의 활동에 대한 지식 등은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으로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림 2)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 영역

바. 삼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분석에서 대상자체가 모호한 워크숍 및 토론회, 연구조사 및 출판, 재정지원의 교육형태는 제외하였다. 사회환경교육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은 모든 연령과 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다는 대답이 2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어린이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하였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일정한 이해와 토론 능력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19.5%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중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23.8%로 가장 많았고 시민 18.8%, 관련종사자 13.7%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교육을 회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다.

사. 삼국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출판 현황

① 정기 간행물 : 한국의 경우 1개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가진 조직이 75.0%로 대부분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고, 이 중 22.2%는 2개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개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가진 조직이 90.4%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19.4%가 2개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1개

〈표 6〉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 영역

구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내용	비율 (%)	내용	비율 (%)	내용	비율 (%)
감 성	93	47.2 %	20	15.0 %	19	18.2 %	
생태적 지식	3	1.5 %	1	0.7 %	1	1.0 %	
사회 - 정치적 지식	4	2.0 %	4	3.1 %	12	11.6 %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의 결심과 행동들	20	10.2 %	15	11.2 %	12	11.5 %	
기 능	27	13.8 %	44	32.9 %	19	18.3 %	
환경 이슈들에 대한 지식	47	23.8 %	41	30.4 %	10	9.5 %	
녹색학교	-	-	-	-	24	23.1 %	
기타	2	1.0 %	8	6.0 %	1	1.0 %	
무응답	1	0.5 %	1	0.7 %	6	5.8 %	
합계	196	99.5 %	133	99.3	98	94.2 %	

〈표 7〉 한국, 일본, 중국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

구분	국가	한국	일본	중국	
어린이	23	13.6 %	9	11.0 %	5 6.2 %
청소년	28	16.6 %	12	14.6 %	19 23.8 %
대학생	6	3.6 %	2	2.4 %	4 5.0 %
회원	11	6.5 %	2	2.4 %	0 0 %
가족	11	6.5 %	6	7.3 %	0 0 %
관련종사자	5	2.9 %	2	2.4 %	11 13.7 %
교사와 교수	13	7.7 %	8	9.8 %	6 7.5 %
시민	18	10.7 %	16	19.5 %	15 18.8 %
모든 이	35	20.7 %	4	4.9 %	5 6.2 %
기타	14 (주부 8)	8.3 %	13 (자원봉사자 5)	15.9 %	4 5.0 %
무응답	5	2.9 %	8	9.8 %	11 13.8 %
합계	164	97.1 %	74	90.2 %	69 86.2 %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조직은 33.3%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였고, 2개 종류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조직은 없었으며,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지 않는 조직이 전체의 6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⑤ 전체 출판물의 수 : 전체 출판물은 한국이 전체의 61.1%가 1~5개의 출판물을, 22.2%가 6~10개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었다. 10개 이상의 출판물을 가진 조직은 전체의 13.9%이며, 한 조직 당 평균 출판물 수는 4.83개였다. 일본 역시 한국과 비슷하여 1~5개의 출판물을 가진 조직이 64.5%로 가장 많았고, 6~10개가 25.8%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조직 당 평균 출판물 수는 3.86개로 한국보다 약간 적었다. 중국 또한 1~5개의 출판물을 가진 조직이 80.9%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1개의 출판물도 없는 조직은 14.3%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조직 당 평균 출판물 수는 2.71개로 일본보다 약간 적었다.

2. 삼국의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논의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한국

한국의 사회환경교육은 민간환경단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중국과 달리 종교 및 여성단체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즉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회환경교육은 시민단체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대다수가 소규모 조직으로써 조직 운영의 측면에서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조직들은 재원의 상당수를 회원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사업 시 참가비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거나 재단을 통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많은 중·소규모 시민단체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수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삼국 중 사회환경교육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에서는 야외답사, 캠프 및 기행 형태가 50%를 넘게 차지했고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활동이 전체의 40%를 넘었다. 그리고 대상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도 많았지만, 그보다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가장

비중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사회환경교육에서는 숲, 강, 갯벌 등의 생태적 공간을 답사함으로써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고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참여대상이 남녀노소, 가족과 친구 등 모든 계층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종의 생태 나들이 또는 여행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에 구체적인 환경쟁점이나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토론회는 전체 교육 형태에서 8.1%에 머물렀고 교육 내용에서 사회-정치적 지식에 대한 것은 2.0%에 그쳤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의 10.1%에 해당하였다. 즉 사회환경교육에서 사회적 의사결정권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이슈 접근과 사회-정치적 논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유는 사회환경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이 생태적 감수성이 친환경적 의식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에도 대부분의 사회환경교육 조직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조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생태 답사 프로그램은 다른 사회-정치적 능력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계획과 실행이 간편하고 다양한 계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회비를 통해 자체적인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교육조직의 출판 현황에서는 대부분이 정기간행물을 가지고 활발한 출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진행조직이 민간환경단체가 많아 회원대상 활동을 하고 있고 각 프로그램에 따른 개별 자료집 제작이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일본

한국과 중국에 비해 산업화과정과 공해로 인

한 피해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시민단체들의 설립과 함께 환경교육 전문단체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본 환경교육 전문조직은 전체 31개 조직 중 6개로(19.4%) 삼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본의 사회환경조직의 성격은 기금지원, 연구 및 정보제공, 환경교육이 가장 많아 전체의 61.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는 다르게 환경운동 단체가 9.7%로 비중이 낮았다. 이렇게 기금지원 분야의 조직이 많은 것은 시민단체들에 재단기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활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재원출처에 대한 조사에서도 회원회비, 후원 및 기부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한국과 비슷하였으나, 재단기금 지원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은 훨씬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워크숍 및 토론회가 전체의 26.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외답사 11.9%, 강의와 연구조사 및 출판이 8.2%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환경교육 방법에 대한 것이 29.1%로 나타나 환경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 및 교육이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림, 야생동물과 서식지 등 환경이슈에 대한 지식이 30.4%로 한국과 중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 구체적인 환경이슈에 대해 실시되는 교육이 많았다. 반면에 사회-정치적 지식에 대한 교육은 전체의 3.1%에 불과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하였으나, 한국과 중국이 환경정책 및 규제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것에 비하여 일본은 환경경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 차이를 보였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은 시민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 중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 외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출판 현황은 약 90%이상이 1개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었고 조직 당 평균 출판물 수는 3.86개로 한국과 중국의 중간 수준이었다.

다. 중국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실시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국가환경보호청(SEPA) 산하에 환경교육·정보센터(CEEC)를 각 지역에 설치하여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조직 중 57.1%가 환경교육·정보센터(CEEC)였고 그 외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학교 또는 대학 연구소가 19.0%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보존 또는 민간환경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은 각각 4.8%로 나타나 시민단체의 참여가 매우 낮음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형태는 강의가 2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구조사 및 출판 활동이 13.5%로 많았다. 반면에 애의답사는 3.8%로 삼국 중 가장 비중이 적었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내용에서는 환경교육 방법 또는 환경관리 기술 등 기능에 대한 교육이 가장 활발하였고 다음으로 친환경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그러나 산림, 물 등의 환경이슈에 대한 교육은 전체의 11.4%로 삼국 중 가장 낮아, 구체적인 환경 쟁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대상에서는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많아 한국, 일본과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회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에서 시민단체의 비중이 매우 적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중국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친환경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환경정책 및 규제법을 홍보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환경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교육이 부족하였다. 사회환경교육에서 시민단체는 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환경정책을 감시하고 시민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정책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민간 사회환경교육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V. 제언

앞서 서술한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환경교육 현황을 바탕으로 삼국의 교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일본, 중국은 사회환경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류와 상호 지원을 활성화하여 각 국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태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본의 활발한 토론과 논의위주의 환경교육이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한국의 생태답사 프로그램들과 일본의 이슈중심의 자료를 통하여 사회환경교육의 내용과 형태를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 일본, 중국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공해산업을 이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도와야 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함께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민간차원의 자율적 사회환경교육기반이 부족한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원은 중국의 사회환경교육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 일본, 중국의 민간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자율적 교류를 통하여 사회환경교육 정보의 교환 및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환경교육 조직의 교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정보 및 사업들의 상호지원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다양한 삼국 공동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결국 삼국의 사회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상준, 김대성, 김두련, 이상복, 한세일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원미사.
- 백명수 (2001). 우리나라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 이시재 (1999). 사회환경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개선. *환경교육*, 12(2), 21-33.
- 이숙임, 강명희, 남상준, 박석순, 성효현, 최돈형, 허명 (1998). 사회환경 교육과정의 표준화 모형 및 통합프로그램 개발연구. *환경교육*, 11(2), 177-211.
- 이숙임, 강명희, 남상준, 박석순, 성효현, 최돈형, 허명(2001). 사회환경 교육과정의 표준화 모형 및 통합프로그램 평가, *환경교육*, 14(2), 76-94.
- 이성희(2001).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효과적인 연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영(1999). 환경교육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연구 : 민간환경단체의 사회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석진, 김종욱, 신동희, 이재영(2002).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전략 개발 연구, 환경부·환경교육학회
- 최석진, 김인호, 남효창, 박선미, 이소영, 심현민(2002).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환경부.
- 최석진, 최경희, 이선경, 이소영, 김윤숙, 이송희 (2002). 민간환경교육 단체·프로그램 테이터베이스,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
- 환경부·한국환경교육학회(2002). 제3회 한국·중국·일본 환경교육 네트워크 심포지엄 자료집.
- 환경운동연합(2001). 제4차 환경교육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 Abe O. (1997).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in Japa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교육* 10(1).

pp.213-222.

- Amemiya, K.& Macer, D. (1999). Environmental Education and Environmental Behavior in Japanese Students. *Eubios Journal of Asian and International Bioethics*. 9, 109-115.
- David Y., John F. & Helen S.(ed.) (2000). *Environment, Education and Society in the Asia-Pacific*, Routledge. 4-75.
- Horald, R. H. (2002). "환경교육에서의 책임 있는 시민정신과 정의적인 영역". *환경교육*, 15(1), 148-176.
- Horald R. H., William J. B., Trudi L. V. & John M. R. (1998). *Essential Readings in Environmental Education*, L.L.C., 311-320.
- NAAEE (1995). Papers on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Standards. 53-58.
- OECD (1998). *Environmental learning for the 21st century*, OECD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79-95.
-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Environmental Education in Asia and Beyond* :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Workshop.
- TEEN (2002). *The 3rd Tripartite (China-Japan-Korea)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 Workshop Proceeding*.
- UNESCO (1999). *Adult Environmental Education : Awareness and Environmental Action* : *Adult Learning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 Health and Population*, A Series of 29 Booklets Documenting Workshops Held at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